

벤

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가 왜 벤처기업을 지원해야 합니까? 지난해 벤처 재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다. 벤처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한 상태에서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정책결정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던 것 같다. 지난 10여 년간 벤처의 흥망사를 지켜보면서 벤처란 ‘똑똑한 사람들 사업하게 해서 사고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커리어를 키워갈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불확

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사업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 벤처가 아닌가 한다.

벤처는 경제전쟁시대의 특수전을 위한 전사를 길러내는 곳이다. 대기업과 같이 막대한 물자와 인력을 가진 정규군을 투입한 전쟁도 필요하지만, 소수의 인력이 속전속결로 침투하는 형태의 전투도 필요하다. 정규군이 가기를 꺼려하거나, 갈 수 없는 곳에 선발대로 투입되는 것이 벤처다. 실력 있는 전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벤처정책이 필요한 근거라고 본다.

O V E R T H E V E N T U R E

벤처 재도약과 실패경험의 자산화

글 _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

벤처는 기존 시장의 파이를 나누는 게임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게임이다. 요즘 유행하는 ‘블루오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벤처다. 이미 IT 분야에 모바일, 게임, 인터넷, MP3 등 수많은 블루오션이 창조되었다. 그러나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 블루오션이 순식간에 레드오션이 되고 만다. 이제는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블루오션을 향해 도전하면서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벤처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것 중의 하나가 ‘패자부활전’이다. EU는 ‘왜 유럽에서는 빌 게이츠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사업실패자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사회 관행과 제도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리 사회도 유럽 못지않게 사업실패에 대한 관용이 부족해

재도전의 기회가 매우 희박하다. ‘상상력과 혁신으로 도전하라’라는 말에 끌려 벤처를 창업했다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전락한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이공계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간접경험을 한 후배들 가운데 벤처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유능한 전사를 키우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패자부활전 정책의 시행이 어려운 것은 실패한 기업가가 제도권에서 재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법률과 제도 때문이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보증이나 용자를 받게 되면 기업가의 개인적 위험이 높아진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무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개인입보와 연대보증 제도 때문에 개인차원에서 합리적인 위험관리다.

우리나라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실패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패가 예견되는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접을 수 있는 퇴출장벽의 완화가 필요하다. M&A 등을 통해 기업을 매각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유용 등의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 개인입보의 책임을 완화해 주는 제도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 과거 벤처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벤처 재도약의 과제이다.